

RISE UP RIM DONG SIK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영역의 위로

주최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 문화본부

서울시립미술관

학예 총괄 / 김희진 학예연구부장
전시 총괄 / 고원석 전시과장
전시 / 이승아 학예연구사
김상철, 전지희, 정희윤 코디네이터
작품해제 / 이승아 학예연구사
김상철, 전지희, 정희윤 코디네이터
교육홍보 총괄 / 송은숙 교육홍보과장
교육 / 구해림, 김정아 학예연구사
송연주, 유지혜 코디네이터
홍보 / 박창현, 유우림, 장세희 주무관
이희옥 코디네이터

행정 및 기술 지원 총괄 / 김기용 총무과장
법률 / 김지은 주무관
건축 / 신현성 주무관
소방 / 원성욱 주무관
설비 / 이호안 주무관
전기 / 이진섭, 김종민 주무관
통신 / 한선호 주무관
방송 / 이상삼, 정인철 주무관
권은지, 장지혜 공안전관

서울시 문화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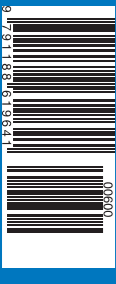
총괄 / 유연식 문화본부장
한병용 문화시설추진단장
이성은 박물관과장
전시 총괄 / 정유진
평창동미술문화공간조성추진반장
전시 / 김호정, 송고운 학예연구사
정아림, 한아영 학예연구원
자료해제 / 권정현 객원연구원
김호정, 송고운 학예연구사
정아림, 한아영 학예연구원
수집 / 유예동 학예연구사
조은성 기록연구사
홍보 / 류혜민 학예연구사
컨텐츠 지원 / 진정화 주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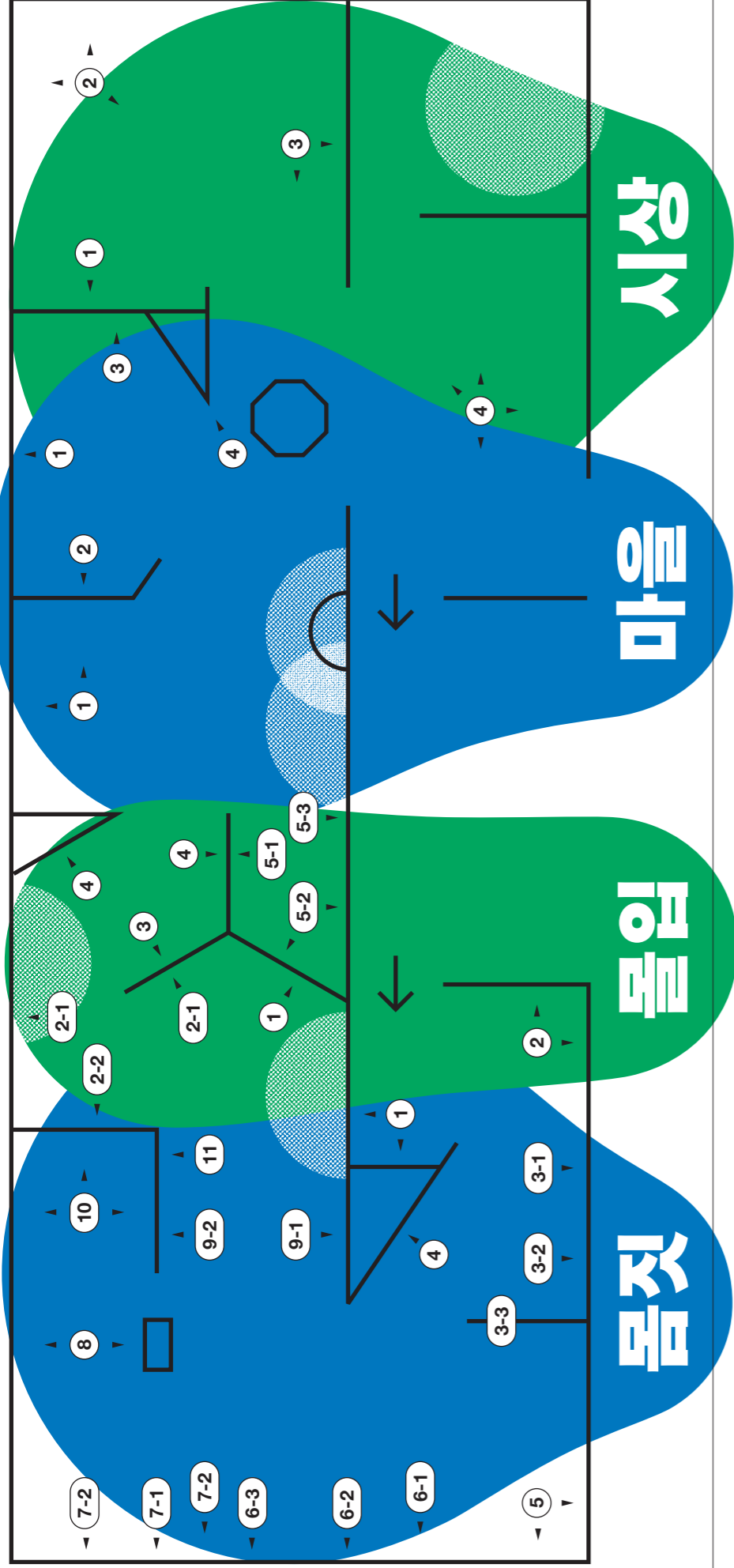
공간 디자인 / 이수성
공간 공사 / ㈜지아이블렌
홍보물 제작설치 / 리쉬이야기
그래픽 디자인 / 제너럴그래픽스
인쇄 / 효성문화
작품 운송 설치 / 아트랜스
영상 장비 / 멀티텍
편집 / 강유미
번역 / 아트앤라이팅, 투미너스
영상 제작 / 57스튜디오
아카이브 재제작 및 촬영 / 프레임바이프레임
홍보 에이전시 / 오윤
기록 / 홍철기, 화양사진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02-2124-8800
sema.seoul.go.kr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 및 도판에 대한
저작권은 각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 문화본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SBN 979-11-88619-64-1
비매품





일어나 올라가 임동식

임동식(1945년-)은 우리 미술계에서 자연미술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 그는 자연, 삶, 예술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평생 끈질긴 퍼포머(performer)로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추구해 왔고, 초창기부터 퍼포먼스의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꼼꼼한 아키비스트(archivist)로서 면모를 보여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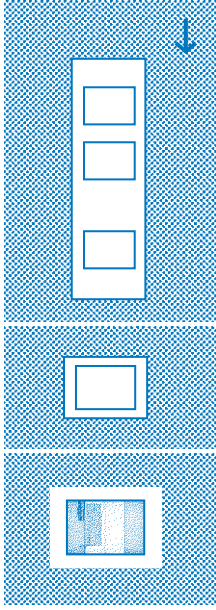
서울시는 2018년부터 4차에 걸쳐 작가로부터 총 5000여 점의 자료를 기증받은 바가 있으며, 현재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으로서 예술기록지원의 수집, 보존, 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인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의 2021년 12월 개관을 추진 중이다. 이에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시 문화본부는 협업을 통해 197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는 임동식의 예술기록자원을 전시로 풀어내어, 작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전시 제목 «일어나 올라가 임동식»은 1981년 여름 공주 금강에서 열린 야외현장미술 '야투(野投)' 첫 모임에서 선보인 두 개의 퍼포먼스 제목을 합친 것으로, 그 이후 줄곧 임동식만의 길을 걷게 된 기념비적인 순간을 역동적으로 포착한다. 전시는 크게 '몸짓', '몸입', '마을', '시상' 등 4개 주제로 나뉘어 현실과 형식에 저항하며 행한 자연교감적 퍼포먼스에 이어 사실과 상상의 영역을 넘나드는 회화에 이르기까지, 당대의 지배적 경향에 휩쓸리지 않고 자유로이 펼쳐 온 그의 작품 세계의 시대적 흐름과 특징을 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수집과정에서 갓 분류되고 등록된 아카이브를 이해하는 과정은 난해한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는 것처럼 쉽지 않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아카이브를 세세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자신의 퍼포먼스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아카이빙하며 새로운 창작의 매개로 활용해온 임동식 작가와의 만남과 대화, 자필 글귀 등은 믿음직한 길라잡이가 되어주었다. 이에 그의 말과 글귀, 수집한 주요 아카이브와 작품의 해제를 일부 빌려, '퍼즐 조각'들을 함께 맞춰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본 전시를 통해 자연에 심 없이 다가가며 느꼈던 상호 교감의 미묘한 순간을 다성적 짜임새를 지닌 예술로 승화시킨 작가 임동식을 세로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몸짓

한국의 자생적인 미술의 실현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임동식이 '야외현장'에서 행하는 '퍼포먼스'라는 방식을 택한 것은 '몸', 그리고 무언가 행하는 '짓'으로, 변화를 추구한 젊은 임동식의 몸부림이다.



1

비록 실현되지 못했지만, «아동인 작품전»(1975)을 위한 리플릿에 적힌 글과 «태양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스케치에는 당시 임동식이 생각한 우리 화단의 현실과 자생적인 미술 실현에 대한 열망이 나타난다.

“현대미술의 전개는 [...] 주체적 사고방식이 결여된 가운데 외국 화단의 그것을 표절 내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성급하고 경망된 사항들이 표출되었고 [...] 창작을 떠나 인적 집합을 중시한 사람들끼리의 우열 경쟁의 [...] 미묘한 터전으로 전락되어 [...] 물거품처럼 찰나적이며 기회주의가 판을 친다.”

무제 77-8-3, 1977

무제 77-8-2, 1977

에타는 기도-1, 1977

(위)태양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래)마주보며 등지는 사람들, 1973

1975년 미실현 기획 «아동인 작품전», 리플릿 초안 ●

한국미술청년작가회 «제1회 야외작품을 위한 캠프»에서 최초로 야외 작업을 시도하였다. 바다를 경험하며 느낀 자유로움, 해방감, 최초의 생명력은 향후 작가가 야외현장작업으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등근 형상의 알은 ‘깨달을 오(悟)’의 병음을 따라 ‘O’로 표기되기도 하고, 불교의 순환 사상을 내포하기도 하며, 직선적이며 이성 중심적인 서구 사상에 대척하는 표상으로서 향후 작업에 계속 등장한다.

1975년 여름의 기억, 2015-2020, 서울시립미술관 제작지원 ●

‘오신(오線)을 찾아서, 4점, 1975

1975년 안면도에서의 ‘어느 소년의 꿈을 위한 작업’, 사진 6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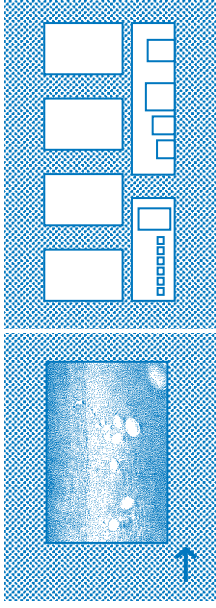
알따라 생명따라 임동식 실내의 작품집 사본

1974년 «제1회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도록

1975년 «제2회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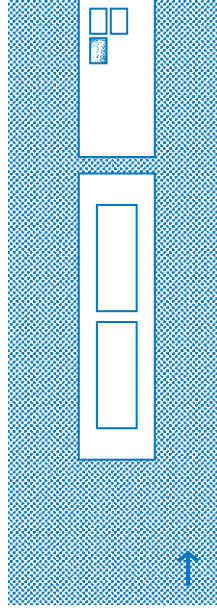
1976년 «제5회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도록

1978년 «제10회 한국미술청년작가회전» 도록



2

● 해당 이미지



3-1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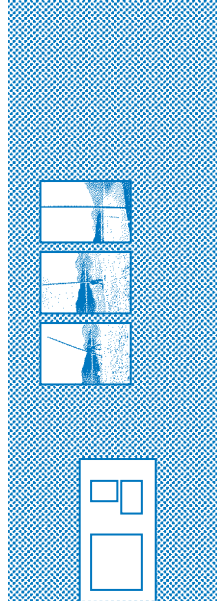
1970년대 현대적 모더니즘에 대한 회의의 발로로 불교의 인식 체계 중 ‘대상을 인식하는 주관’에 해당하는 ‘견분(見分)’을 주제로 시리즈를 제작한다. 평면의 일부를 떼어냈다 다시 붙이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 부중불감을 표현하며, 부재와 존재에 대한 인식론에 물음을 던진다.

1979년 <견분(見分)>-흑(黑)에 의한 정신훈(正心洞)-사진

1978년 <견분(見分)>-공(空)에 의한 정신훈(正心洞)-사진

1978년 <견분(見分)>-늘리가 사진 ●

1978년 <견분(見分)>-나무(木) 나무(俄無)로- 사진 2점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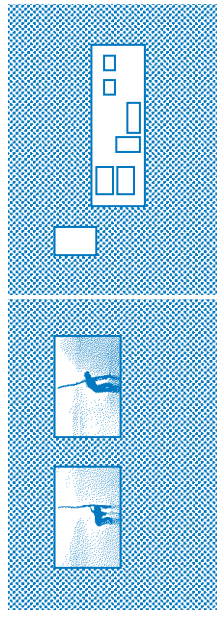
1980년 임동식은 홍명섭 유영 등과 주도하여 함께 «금강현대 미술제 창립야외현장전»을 기획한다. 금강 백사장에서 붉은색으로 칠한 플라스틱 기둥을 세우는 퍼포먼스 <견분(見分)>-기둥세우기는 금강의 맑은 물줄기 흐름에서 자연의 혈관 내 맥동(脈動)을 느끼게 한다.

1980년 공주 금강에서의 <견분(見分)>-기둥세우기가 문서

1981년 «금강 현대 미술제 실내전»의 <견분(見分)>-수직으로, 설치 사진

1981년 «금강 현대 미술제 실내전»의 <견분(見分)>-수평으로, 설치 사진

<견분(見分)>-기둥세우기-아카이브 재가공 ●



3-3

1981년 공주 금강에서 열린 «야투-야외현장미술연구회 창립 야외 전»에서 진행한 <얼어나는 이전에 신보인 <견분(見分)>-기둥세우기>와 형식적으로는 유사하나, 때내려온 폐목을 일으켜 자연이 던져준 상황을 여과 없이 수용하는 면에서 ‘자연미술’에 더욱 다가간다. “나 임동식이 30여 년간 몰두한 ‘야투(野投, Field Shot)’는 둘로 던진다, 둘에서 내게로 던져져 온다는 뜻으로 [...] 실내 중심의 미술 행위를 야외로 전환하며 기존 방법론을 확장, 재해석하는 데 있다.”

<얼어나, 아카이브 재가공 2점 ●

얼어나 누르지마, 올라가, 1984

1982년 함부르크에서의 <세우다> 사진

1982년 함부르크에서의 <누이다> 사진

1982년 함부르크 엘베강에서의 <얼어나> 사진

1982년 함부르크 엘베강에서의 <얼어나, 필름 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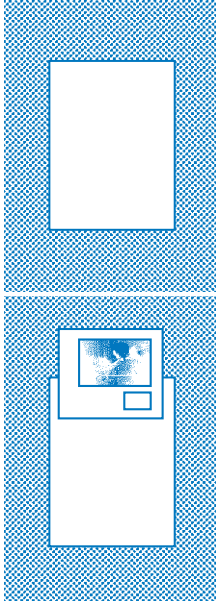
1981년 공주 금강에서의 <얼어나> 사진 2점



4

“하도 신기해서 주워왔어요. 마치 손금처럼 세월의 흔적이 [...]”
무엇을 쫓지 모르는 채로 지구의 역사, 인류의 변천사가 담겨 있는
자연물인 화석을 캐는 행위는 어떠한 의도성 없이 자연을 맞이하는
야투의 자세와 닮아있다.

사람과 화석의 기억, 1985
올리(뉴시 동작) 내리기(화석 캐기), 1985
화석에 관한 두 개의 이미지, 1988
화석 캐기, 2019-2020, 서울시립미술관 제작지원 ●
1985년 함부르크에서의 ‘화석이미지’ 사진 3점
1985년 ‘생긴 문맥’, 사진
1985년 ‘화석캐기’ 사진 4점
1985년 함부르크 엘베강에서의 ‘물무늬와 손금’ 사진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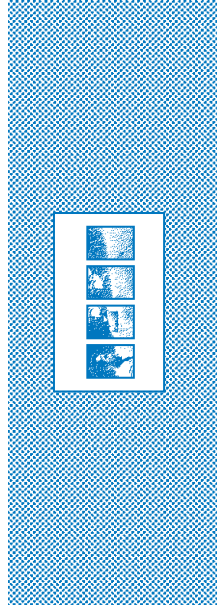


5

임동석이 이전에 행한 퍼포먼스를 다시 그리게 된 계기는, “바깥에
서 여러 생각을 가지고 원가를 해왔던 것을 다시 [...] 회화로 옮길
때 그리는 과정에 그때를 생각할 거고, [...] 뭔가 더하기가 되는 그
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생각 속에서” 시작된 것이다.

1981년 공주 금강에서의 ‘물과 함께’ 퍼포먼스 당시 임동석
은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던 강물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회
상한다. 이 순간을 기록한 사진에서는 햇살에 비쳐 생기는 물비를
이 거의 안 느껴지지만, 그 퍼포먼스를 회화로 옮긴 ‘1981년 여
름의 기억’에서는 마치 은하수처럼 빛나고 있다.

1981년 여름의 기억, 2005,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1981년 공주 금강에서의 ‘물과 함께’ 사진 2점 ●
거북이, 2005,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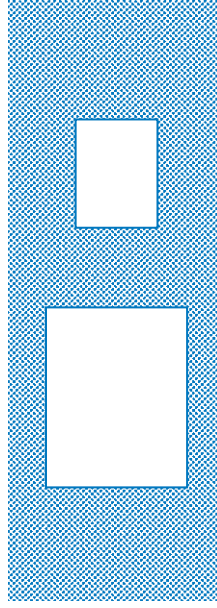


6-1

(인쇄물) 야외현장미술은 “한시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지기에,
이 내용을 어떻게 “기록하고 유지시키느냐, 아니면 밖에서의 일을
어떻게 또 안에서 전시 형태로 그 메시지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냐”는 임동석에게 있어 늘 과제였고, ‘아카이빙’은 이러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방식의 토대가 되었다.

1985년 함부르크 인근에서 본인의 수염과 자연에서 나는 풀
을 이어 묶고 마주 앉은 퍼포먼스 ‘풀잎과 마주한 생각’의 사진은
그의 작업을 소개하기 위한 자료집 제작을 위해 의도적으로 확대,
복사된다. 작가는 복사로 인해 떨어진 화질과 두드러진 픽셀 사이
로 생긴 ‘생긴 공간’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사유할 수 있는 ‘틈’을
만든다고 생각하였으며, 이는 추후 그의 회화 작업에 있어 중요한
모티프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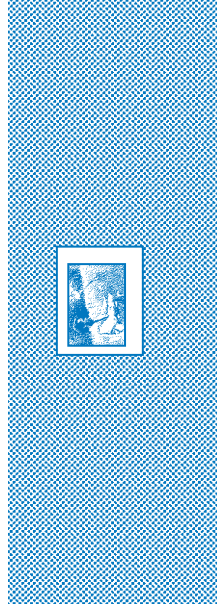
1988년 ‘풀잎과 마주한 생각’, 문서 4점 ●



6-2

(회화) ‘풀잎과 마주한 생각’은 사람과 자연을 잇는 행위로 양자의
수평적 유대를 모색하는 그의 독특한 사유 방식을 보여준다. 두
개의 화폭에 그려진 ‘풀잎과 마주한 생각’을 비교해보면, 2005년
에 완성된 검은 배경의 회화는 퍼포먼스를 행하는 작가가 강조된
반면, 1992년부터 2018년에 걸쳐 제작된 작품은 수풀 속 행위자
가 가려져 자연과 더욱 밀착된 모습이다.

풀잎과 마주한 생각, 2005,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풀잎과 마주한 생각, 1992-2018, 정지욱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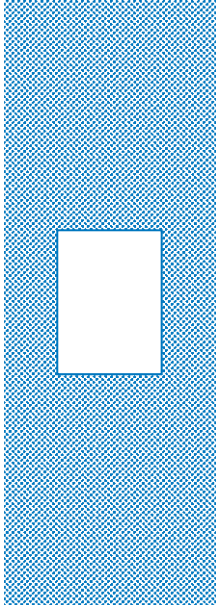


6-3

(기록물) “인간의 삶. 꽃들의 삶. 분리되었으나, 그러나 또한 분
리되지 아니하고 류어진 [...] 인간이 습득한 사고의 구조는 같은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자유롭게 자연과 결합할 수 없다. [...] 나의
수염과 머리카락과 풀잎의 동일화, 왜 나는 이러한 결합을 볼 수
없을까?” -1988년 1월

퍼포먼스 ‘풀잎과 마주한 생각’은 같은 해 함부르크 인근 풀밭에서
진행한 ‘풀과 머리카락 잇기’와 1988년 원산도에서 진행한 ‘갈대
와 수염 류기’, ‘아기 소나무와 마주한 생각’ 등으로 변주된다.

1985년 함부르크에서의 ‘풀잎과 마주한 생각’ 사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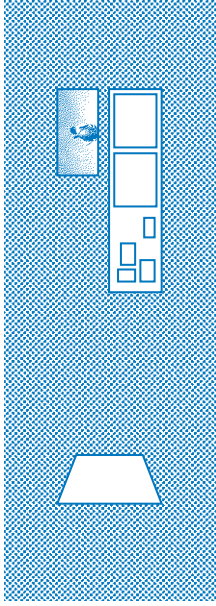


7-1

플발에 누워 맑은 공기 마시다.

“자연 속에서 작품을 하면 [...] 삶의 근원공간인 자연에서부터 내게 던져져 오는 일들을 수용하는,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이며, 수동적이라기보다는 ‘수용적’ 내용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1987년 독일 노이에베르크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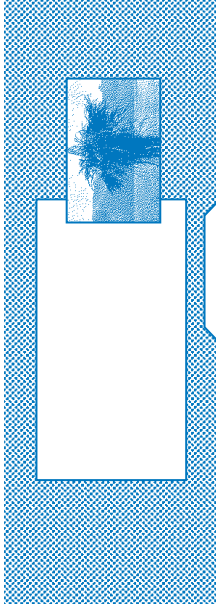
플발에 누워 맑은 공기 마시다, 2019-2020, 서울시립미술관 제작지원



7-2

‘덧그리기’는 임동식의 예술 과정에서 중요하다. 훼손된 부분을 다시 기존의 내용으로 덧그려주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 혹은 변경하는 등 개작(改作)의 방식이다.

1987년 노이에베르크섬에서의 이슬 받아 마시기·사진
1985년 함부르크에서의 거북이와 함께한 방방·사진 5점
·거북이와 함께한 방방·아카이브 제가공 ●
1988년 서해안 원산도에서의 <갈대의 수렴 율기> 사진
1988년 서해안 호도에서의 야투 <선사시대 흉내내기>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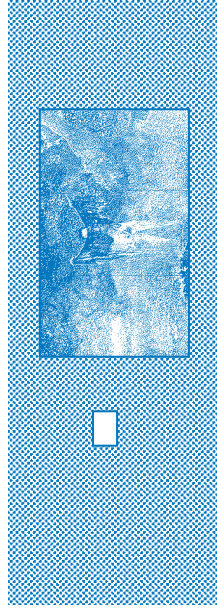


8

금강 변에 자란 풀잎을 온몸에 동여매고 걸어 다니다 강으로 들어가 잎을 벗어 던지는 퍼포먼스의 본래 제목은 ‘풀잎으로’였으나 “사람의 동작”을 강조하고자 온몸에 풀 꽃고 걷기로 변경되었다.

당시 내린 가랑비 덕분에 풀내음을 맡으며, “자연과 함께한 몸짓은 [...] 자유로워진 느낌과 더불어 평온과 행복감이 내 안으로 밀려오는 듯하였다.” 고 작가는 회상한다. 행위는 18점의 사진으로, 그때 받은 작가의 감응은 세월 속에서 소멸, 증폭, 재편집되어 화폭을 통해 새롭게 전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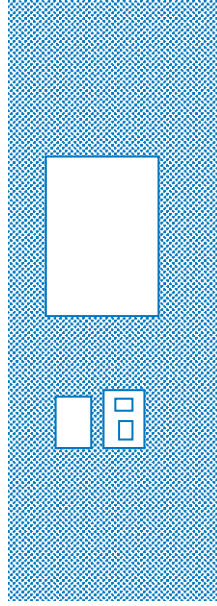
온몸에 풀 꽃고 걸어간 기억, 2016-2020 *2020 부분개작
1981년 공주 금강에서의 온몸에 풀 꽃고 걷기·사진 10점 ●
온몸에 풀 꽃고 걷기·아카이브 제가공



9-1

‘이끼를 들어 올리는 사람’은 1990년대에 시작하여 최근까지도 개작을 진행했다. 퍼포먼스 당시처럼 옷을 입은 모습으로 그려진 회화가 본인만 강조된 채 자연과 교감하며 느낀 바를 전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바지를 녹색으로 바꾸었다가, 현재의 나체 모습으로 변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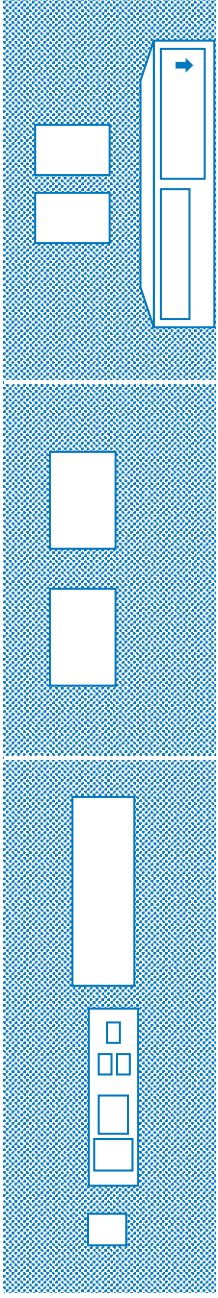
이끼를 들어 올리는 사람, 1993-2020 *2020 부분개작 ●
이끼를 들어 올리는 사람, 1993



9-2

“당신도 나처럼 물속에서 물고기가 당신에게 오는 것을 즐겨보세요!”

‘물고기와 고갈’ 실내 설치 계획도, 1988
1988년 서해안 원산도에서의 <나(我) 보기, 올 보기> 사진
1968년 서해안 원산도에서의 <물고기와 교감된 태안의 몸자> 사진
물고기 나(我)보기, 2019-2020, 서울시립미술관 제작지원



10

임동식은 독일 유학 시절(1981-1989)동안 본인의 작업을 비롯한 야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내한 시에는 대전, 군산, 청주, 울산 등지에서 «오늘의 독일 미술 슬라이드 감상회»(1988) 등을 통해 독일 현대미술의 최신 동향을 알리고자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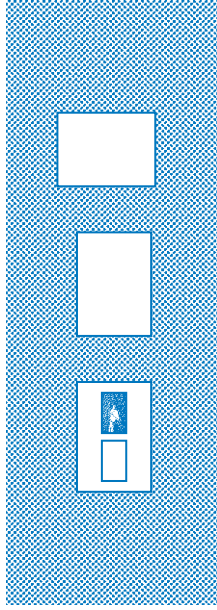
야투와 그의 작업은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 교수인 클라우스 뵘러(Claus Böhmler)의 주도하에 열린 16회의 감상회, 로베르 필리우(Robert Filliou)가 구성하고 르네 블록(René Block)이 총괄한 «평화의 비엔날레»(함부르크, 1985), 게오르그 아페(Georg Jappe)가 기획한 «자연과 시간»(함부르크, 1987), «새로이 보여진 오소로서의 미술 수단»(베를린, 1989) 등에 꾸준히 소개된다.

특히 임동식이 기획한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 1989)는 1981년 야투 창립 이후의 주요 작품을 사진, 슬라이드, 비디오, 음향설치, 자연물 설치, 연구집 등으로 정

리하여 실내에서 선보인 전시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의 자연미술에 관심을 가진 독일, 미국, 캐나다 출신의 작가들은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금강, 1991)에 참여하여 야외설치, 심포지엄 등을 함께한다.

농구-자연이 주는 패스, 1986
1980년 공주에서의 임동식 사진
1981년 공주 금강에서의 야투 현장 사진 2점
1981년 야투 야외현장미술연구회 안내문 사진
1981년 야투 자료집 도판 일부
1985년 노이에베르크섬에서의 «자연과 미술 심포지엄» 사진 2점
1988년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에서의 «출업전» 전경 사진
1988년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에서의 «연례전» 전경 사진
야투 야외현장미술연구회 단체사진
1988년 야투 여름연구회의 호도 입도 사진
1988년 «세곳의 섬으로부터 전» 전시전경 사진 2점
1991년 «금강 국제자연미술전» 운영실에 배치된 야투관련 자료 사진
1991년 «금강 국제자연미술전» 운영진 단체사진
1980-1995년 야외현장미술자료 아카이브 재가공

1981년 «금강현대미술제» 제2회 대전전 포스터
1991년 «여름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 포스터
↓
1988년 청양 장곡사에서서의 자연에 놀기 사진
임동식 미술기획자료 스크랩
1988년 «세곳의 섬으로부터 전» 리플릿 초안
1995년 «금강에서의 국제자연미술전» 독일 참여작가들의 선물 2점
1980년 «금강현대미술제» 창립야외현장전 도록
1981-1985년 야투 작품집 스크랩
1981년 신현태 사의 일, 물의 일, 사진
1993년 대청호에서의 «최추와 뇌신경» 사진
1999년 함부르크에서의 야투 전시를 위한 자료집 초안
1988년 제29회 야투 자료집 초안
1988년 제28회 야투 자료집 초안
1989년 함부르크에서의 «야투» 리플릿
1988년 «독일 현대미술의 동향» 스크랩
1988년 «독일 미술 슬라이드 감상회» 자료집
1988년 9월 8일 「오늘의 독일미술을 소개 하러 온 재독화가 임동식씨, 『대전일보』 스크랩
1988년 «세곳의 섬으로부터 전» 리플릿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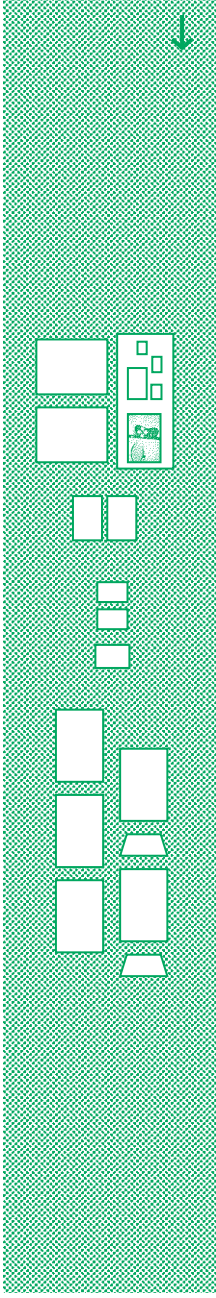
1970년대부터 시작된 생명의 원천인 '알'에 대한 관심은 1984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생명의 음을 듣는 동작»이라는 퍼포먼스로 이어진다.

1984년 함부르크에서의 «생명의 관쓰기» 사진
1984년 함부르크에서의 «생명의 음을 듣는 동작-심장» 사진 ●
자연물 머리에 쓰기, 1984
생명의 음을 듣는 동작-이웃, 1984



몰입

“[...] 드로잉은 작은 톨을 던졌는데, 파문이 크게 일어나는 그런 것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펼쳐보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엄청 재미있어요. 몰입된 상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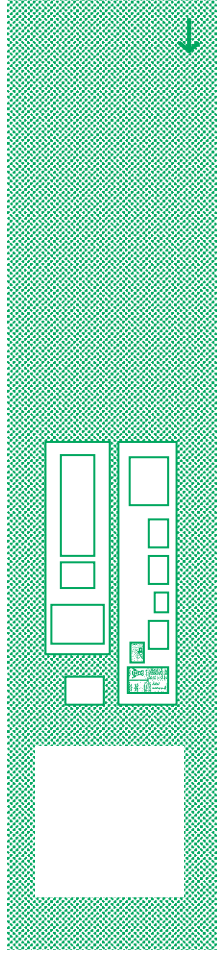


1

함부르크 유학 시절의 퍼포먼스와 야외 현장 작업의 사진 자료는 텍스트 및 드로잉과 재편집되어 수작업으로 제작된 책으로 거듭난다. 이러한 자료집은 테마별로 약 20여 권이 제작되었다.

‘부처님의 귀’를 테마로 한 자료집에는 그의 작업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알과 소리, 거북이 그리고 부처에 관한 사유가 결합되어 있다. 새알은 만물의 소리(생명의 음)를 듣는 부처의 귀를 상징하며 각 설치물의 스피커에는 새소리, 아기 소리, 곤충 소리 등의 자연음과 전자음이 합성되어 재생되었다.

- 부처님의 귀· 아카이브 재가공 2점
- 1967년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 <안례전>에서의 ‘부처님의 귀’ 사진
- 1967년 ‘부처님의 귀’ 문서
- 1967년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 <연례전>에서의 ‘부처님의 귀’ 부분 사진 2점
- 1992년 9월 9일 『자연의 수도사』 10년여 작업, 『중도일보』 스크랩 ●
- 부처님의 귀· 설치 계획도, 1987
- 비둘기, 미래의 부처, 1983
- 부처님의 귀·탈갈 깔짚, 1988
- 사진과 골짜길 부학 드로잉, 1987
- 스피커와 전선줄 이용한 드로잉 설치 계획, 1987
- 부처님의 귀· 아카이브 재가공 3점
- 진것줄 드로잉· 아카이브 재가공
- 1967년 ‘진것줄 드로잉’ 자료집
- 부처님의 귀· 아카이브 재가공
- 1967년 ‘부처님의 귀’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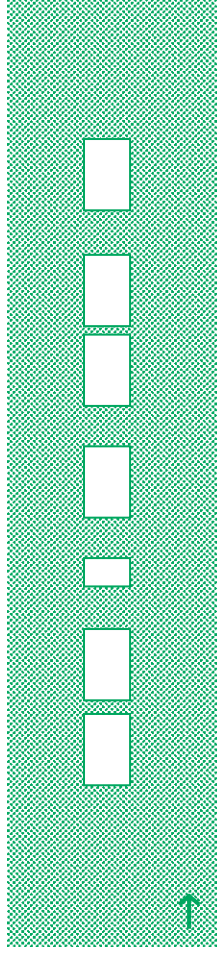


2-1

함부르크에서 선보인 음향 작업들은 달걀과 상추 잎 등 주변의 자연물을 활용하고, 일상의 소리를 재조합하는 점에서 삶과 예술의 통합이라는 플럭서스(Fluxus)의 중심 기조와 유사한 결을 보여준다.

“좋은 그림에로의 음향(Der Gute Ton Zum Schönen Bild)”(콘스탄트하우스 함부르크, 1969)에 훌륭한 임동식 작업의 현장 사진과 홍보 인쇄물이다. 전시에는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크러우스 피를러, 존 케이지(John Cage), 백남준 등을 포함하여 55명의 예술가가 참여했다. 특히 플럭서스 계열의 예술가가 대거 참여하여 당시 함부르크 지역의 예술계가 실험음악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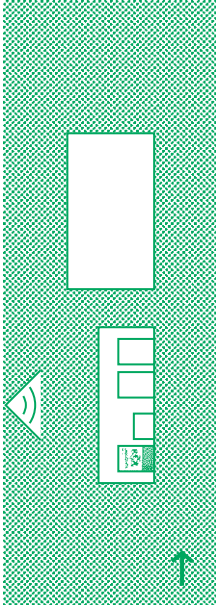
임동식은 전시 제목과 동명의 작품 ‘좋은 그림에로의 음향’을 출품하였다. 해당 작품은 테이블 위에 브라운관 텔레비전과 가아금을 비스듬하게 엮어두고 벽에 가아금 형태처럼 전선을 배치하였다.



텔레비전의 영상은 작가가 촬영한 영상을 텔레비전에서 재생하고 이를 재촬영한 것이다. 그 결과 화면의 떨림이 무척 심하였고, 그러한 떨림은 가아금 현의 떨림, TV 전파의 파동과 어우러져 묘한 공명(共鳴)을 일으켰다.

함부르크에서의 전시는 공주, 대전, 울산에서 개최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나 실현되지 못하고 포스터, 브로슈어 등의 기획안이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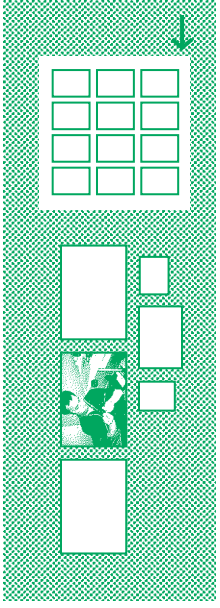
- 1989년 미실현 기획 ‘좋은 그림에로의 음향’ 리플릿 초안
- 1989년 미실현 기획 ‘좋은 그림에로의 음향’ 포스터 초안
- 1990년 미실현 기획 ‘독일로부터의 음향미술가들전’ 포스터 초안
- 음의 유희(가아금 떨림=TV 전파=물의 떨림에 의한 파장), 1985
- 1984년 함부르크에서의 음향작업 드로잉
- 1984년 함부르크에서의 ‘시각적 사유로서의 음’ 사진 4점
- 1989년 함부르크 콘스탄트하우스에서의 ‘좋은 그림에로의 음향’ 전시 전경 사진 ●
- 1989년 함부르크 콘스탄트하우스에서의 ‘좋은 그림에로의 음향’ 리플릿 2점 ●
- 구름과 로켓· 비디오· 비디오 설치 계획도, 1986
- 사람 인(人)자 보이는 설치, 1986
- 일상 사물들의 설치 작업화, 1989
- 피아노 연주동작으로서 슬라이드 보이기, 1985
- 슬라이드 이미지 보이기 위한 설치 계획도, 1984
- TV에 물을 붓다, 1984



2-2

임동식이 직접 녹음한 '음의 율회(Tonkreis)'는 주방의 주전자에서 수증기 세어나는 소리, 환풍기 작동 소리 등이 새소리, 계곡 물소리 등의 자연의 소리와 유사하기에, 결국 모두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점을 '소리의 율회'로 표현한 6분 18초의 음향작업이다. 1987년 함부르크 BATIG 갤러리에서 진행된 <예술시도 (Kunstproben)>에서 선보인 이 작업은 녹음테이프를 재생되었으나, 후에 전시에 참여했던 동료 작가에 의해 소노시트 음반으로 제작되어 도록에 삽입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해당 음반을 33년 만에 복원하여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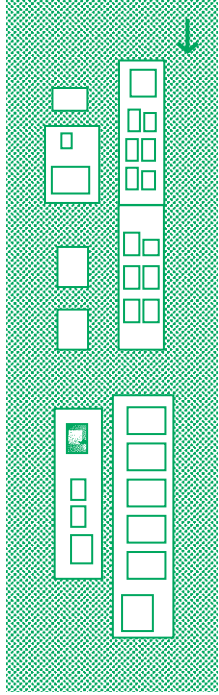
1987년 <예술시도> 도록 ●
 1987년 <예술시도> 도록에 수록된 '음의 율회' 소노시트
 1987년 <예술시도> 도록 편집 자료
 <예술시도> 도록 아카이브 재가공



3

1984년 진행된 '음향 드로잉'은 청진기를 색연필, 사인펜, 볼펜, 먹과 붓 등에 대고 들리는 소리와 느낌에 따라서 드로잉을 하는 퍼포먼스이다. 그림 도구와 종이의 마찰로부터 생기는 거친 소리, 미끄러지는 소리, 무음 등을 시각화하여 눈과 귀의 감각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1984년 함부르크에서의 '음향 드로잉' 12점
 '음향 드로잉' 아카이브 재가공 3점 ●
 9개의 음향 회화 행위 설치 드로잉 공부, 1983-1985
 음향 회화 단상·그림과 소리, 1985
 자연 음을 듣는 동작 드로잉, 198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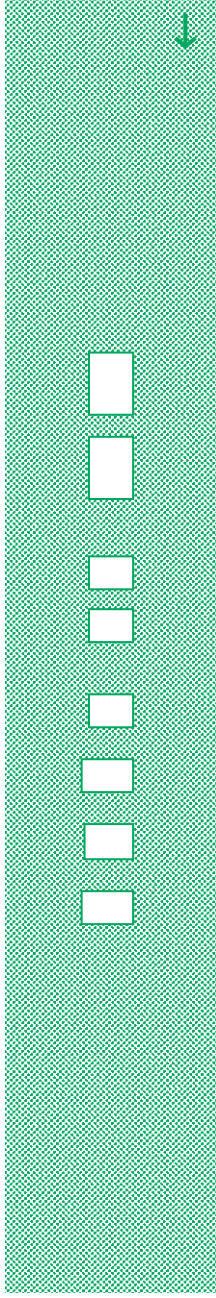
황동사 벽에 그린 소나무가 어쩌나 사실적이었던지 새들이 날아 들었다는 슬거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관계로의 사실회화 단상>은 오려지거나 그려진 비둘기의 허상에 실제 비둘기가 날아와 실재로 전환되는 관계성을 이룬다는 '실재와 허상'에 대한 임동식 특유의 재미난 접근을 확인할 수 있다.

『제가 하는 행위는 [...] 의도하고 계획해서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 숨도 쉴 수 없는 긴장이 와요. [...] 잘 오던 비둘기도 갑자기 사진기를 드니까 안 오고, 경계를 하고, 비둘기가 오는 시늉을 하다가 멈출 때, 정말 숨쉬기가 어려운 그 긴장감. 그것은 일대일의 상황이기도요.』



참세는 숲거의 노송도에 날아왔는가?, 1982
 1983년 함부르크에서의 '발전-새를 담은 나뭇잎' 사진
 1983년 함부르크에서의 '살은 새를 담은 나뭇잎' 자료집
 고군은 생선을 좋아한다. 고군은 쥐와 놀다, 1982
 새들과 색채-아외 행위 해설도, 1984
 1984년 함부르크에서의 '관계로의 사실회화 단상-새들과 색채' 사진 7점
 1983년 함부르크에서의 '관계로의 사실회화 단상-오라' 사진 2점
 1983년 함부르크에서의 '관계로의 사실회화 단상-비둘기' 사진 3점
 1983년 함부르크에서의 '관계로의 사실회화 단상-비둘기, 오라' 사진
 함부르크에서의 '관계로의 사실회화 단상-꽃그림과 벌' 사진 ●
 1983년 함부르크에서의 '관계로의 사실회화 단상-참새' 사진 3점
 1984년 함부르크에서의 '관계로의 사실회화 단상-사과' 자료집 5점
 1984년 함부르크에서의 '레이프 드로잉' 사진

<관계로의 사실회화 단상> 아카이브 재가공 ●



5-1

‘부부 1’, ‘부부 2’는 1973년 대학 시절 그렸던 여인의 누드 드로잉을 다시 꺼내어 1999년에 이르러까지 의복선을 덧그리거나 마주 누운 남성과 아이를 그려 넣은 것으로, 처음과 전혀 다른 새로운 작업으로 거듭난다.

‘과거의 그림에 제가 덧그림을 하는 것은, 옛날 그림을 볼 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 와서는 왜 여기까지만 생각했을까, 다시 그리는 것도 재미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다른 보완점이 있다, 이렇게 그리는 것입니다. 미완성 작품은 처음부터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고 완성과 미완성의 경계에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완성인가 어디까지가 미완성인가 하는 깊은 결론을 내리기는 힘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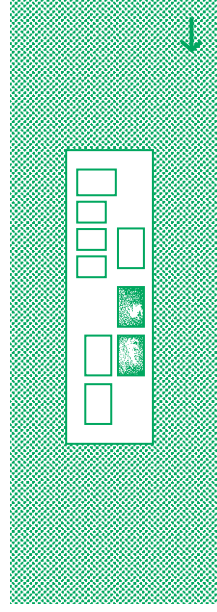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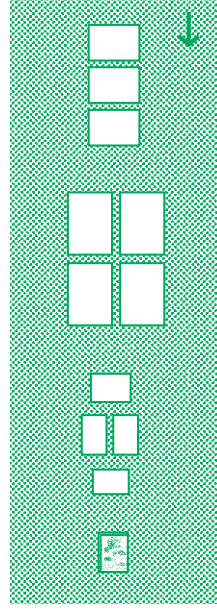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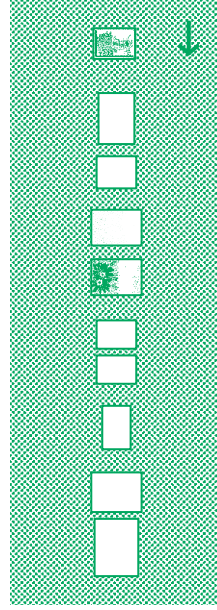
부부 1, 1973-1999
부부 2, 1973-1999
자연형 동근 자아, 1985
기하 도형적 문화인간, 1985
뒤틀러버린 춘향전, 1988
성춘향과 이몽룡전 ‘수업 난 춘향’, 1985
100DM(마르크) 건네는 이몽룡의 구애, 1985
수업 난 이도형, 방자, 향단이, 춘향아, 1985

5-2

‘사과 수확’(1984) 무르익은 사과 열매가 상자로 옮겨져 사과 수확으로, 흰 눈이 내리다(1985) 하늘에 흩날리던 눈이 지붕 위에 자욱이 쌓이고, ‘별빛’(1985) 밤하늘을 수놓은 별은 별공별이 되어 바다를 비추며 떨어진다. ‘염소들’(1985) 지우개에서 떨어진 가루는 염소들의 자양분이 되고, ‘심청전’(1984) 연꽃은 연꽃 선을 따라 피고 지며, 심청은 인당수에 몸을 던지고 심봉사는 눈을 뜬다.

임동식에게 드로잉은 다체로운 실험적 시도가 가능한 열려있는 장(場)이다. 값싼 캔지 위에 지우개 가루, 철사 등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활용한 드로잉은 상호작용하며 이야기를 한 장면에 만들어낸다. 또한 그려지고 오려낸 흔적을 옮기는 과정은, 평면의 일부를 떼어 내고 붙이며 존재/부재의 유동적 관계를 인식했던 70년대 말, ‘건분(乾粉)’ 시리즈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사과 수확, 1984 ●
흰색이 주는 내 가지 이미지, 1985
흰 눈이 내리다, 1985
흰 눈이 내리다 2, 1985
별빛, 1985 ●
별빛이 떨어지다, 1985
부앙아, 1985
바다 위의 배-독일 노이에베르크섬 가는 길, 1987
심청전, 1984
낙타-하늘의 구름을 마시다, 1985
‘탁구, 아의 설치 계획도, 1984
‘탁구-가능한 빠르게, 아의 설치 계획도, 1985
탁구-경기 후, 1985
정보 시대에 있어서 우리를 평민들에 관한 보도 4점, 1986
명절 후, 1999
새가 되어 날다, 1990
꽃과 벌, 1990
노인부부, 1990
염소들, 1985 ●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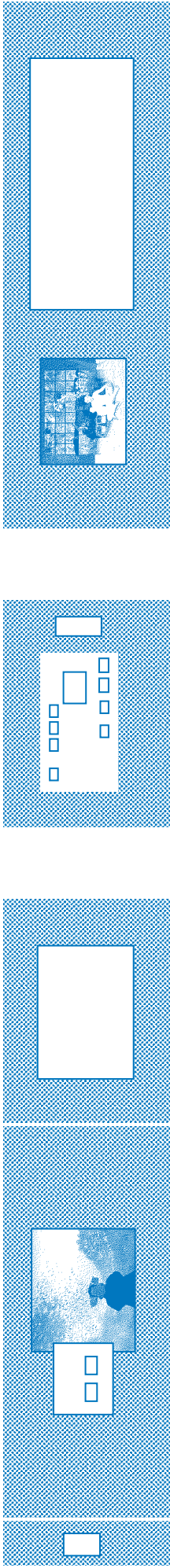
‘염소’와 ‘토끼’는 독일 북해의 자연보호구역인 노이에베르크섬에서 열린 ‘자연과 미술 심포지엄(Natur u. Kunst Symposium am Neuwerk)’(1987)에서 노랑계 시든 풀로 주변에 반목하고 있던 염소, 토끼를 형상화한 작업이다.

1985년 함부르크에서의 기하도형적 삶의 품질-나뭇잎, 사진
1985년 함부르크에서의 기하도형적 삶의 품질-풀밭에 뱀, 사진
1985년 함부르크에서의 기하도형적 삶의 품질-사람, 사진 2점
1983년 함부르크에서의 ‘물고기’ 사진 2점
1987년 노이에베르크섬 풍경 사진
1987년 노이에베르크섬에서의 ‘토끼’ 사진 ●
1987년 노이에베르크섬에서의 ‘염소’ 사진 ●



마을

1990년대 초, 임동식은 공주시 원곡마을에서 문명사회 이전과 같이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생활을 시작한다. “예술작업을 ‘짚거리’로 하는 나는 농사 ‘일거리’ 속에 사는 분들과 마을환경을 통하여 세탁되면서 새로이 열려진다.”



1

꽃을 심고 손수 집을 짓는 일, 토끼·강아지와 더불어 살고 마을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마을 공동체의 삶에서 예술의 근원을 찾는다. 1995년부터 7년에 걸쳐 작업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본춘이와 화가아저씨〉 연작은 자연의 흐름과 닮은 인간 생사와 마을 공동체적인 삶에 대한 예찬을 보여준다.

소년과 그의 50여년 후의 손, 2007

1993년 서산 개심사에서의 〈토끼〉 사진

1993년 공주 원골마을에서의 〈토끼풀〉 사진

토끼, 2005 ●

원골에 심은 꽃을 그리다-3, 2019-2020, 서울시립미술관 제작지원

1990년대 공주 원골마을에서의 〈강아지 키우기〉 사진

1994년 공주 원골마을에서의 꽃 심고 가꾸기 사진

1993-1999년 공주 원골마을 작업실 전경 사진 2점

1999년 꽃 심기 화단 조성 구역도,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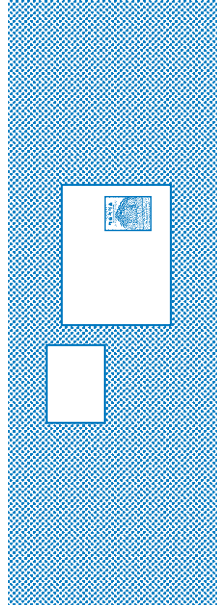
1993년 공주 원골마을에서의 〈호박잎 흉내내기〉 사진 2점

1985년 함부르크 시립공원에서의 붉은 꽃 피우기 사진 2점

꽃피우기, 1985

본춘이와 화가아저씨-여름, 2001-2002, 대전시립미술관 소장 ●

원골마을 별빛 수선화밭에서 아기 강아지 찾기,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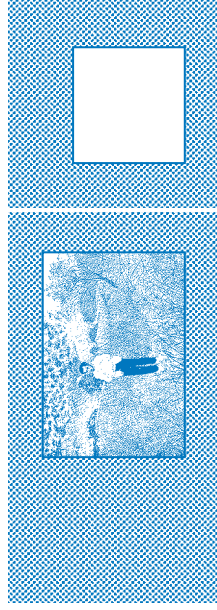
2

임동식은 '농사는 곧 자연생명예술이요(農即藝) 자연생명예술이 곧 농사다(藝即農)'라는 예술적 관념을 바탕으로, 1993년부터 10년 동안 원골 주민들과 함께 «예술과 마을»이라는 마을 미술제를 기획한다. 농사짓는 일상과 자연에 감응하는 마을의 삶은 있는 그대로 온전한 자연예술임을 깨닫는다.

“자연물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은 당신들의 입장에서 일평생 해온 것이고, 늘 마주하는 것이라 이거죠. (마을 분들이 말씀하시길) ‘아유 그림과 조각은 못 해도, 저런 거라면 나도 할 수 있는데 [...]’”

원골에 온 손님들 1, 2013

1993-2003년 «예술과 마을» 아카이브 재가공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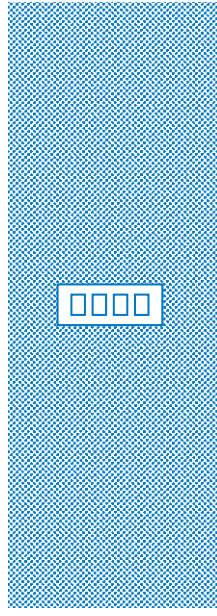
칠갑산 장곡사에서 이뤄진 아루 세계절연구회에서 낙엽과 풀 줄기, 냇물을 몸에 두르며 자연에 자신을 풀어놓는다. 강박에서 자유로워진 정신은 사유의 틈을 열어 놓고, 이는 회화에서 성긴 붓질로 드러난다.

“자연 공간 속에 머무름은 정신의 개방과 선(禪)적 사유 상태를 있게 해준다.”

“그림을 그리고 자연에서 하는 그런 행위들을 생존이나 생활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생각하고 본다면, 쓸모없는 일인 거예요 [...] 그러나 정신의 울동, 여백, 긴장해소로서 사람들을 고양시키고 정화시킨다고 할까, 그러한 지점을 열어주는 것이 시각예술의 역할이겠죠. 이런 것이 없다면 정말 삭막할 거예요.”

몸에 풀 넣을 이어보기, 2019-2020, 서울시립미술관 제작지원 ●

스쳐 본 풀밭, 2012



4

인위적 산물의 냉랭한 금속성에 맞서 몸으로 자연과 마주하다.
“지금도 어디엔가 남아있을 그 맑은 물과 땅 그리고 마음을 찾아가는 뜻과 마음으로!”

1988년 청양 장곡사에서의 사계절 연구회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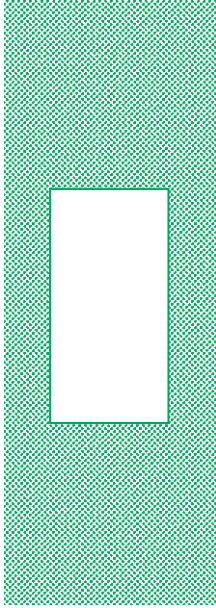
1990년 공주에서의 나무속에서 나무로 나무로 사진

1994년 가을 대청호 녹슨 쇠모자를 쓴다, 사진

1997년 공주 마곡사에서의 ·이런 불피우기가 작업이 되어야 하는 이유· 사진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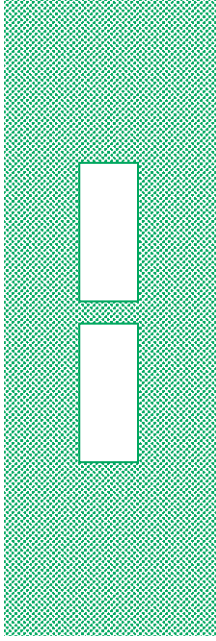
임동식의 퍼포먼스는 현재진행형이다.
그의 회화는 과거 자연에서 행한 퍼포먼스에 대한
‘재연’을 넘어선 새로운 ‘해석’으로서, 사진과
영상 등의 기술 매체가 담아내지 못하는 기억과 감정의
흔적이 가감, 증폭된 한 편의 시(詩)와 같다.



1

임동식에게 금강은 “금강현대미술제”와 야투의 근원지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장소다. 또한 순수한 자연의 모습을 간직했던 자연의 보고로서 그리움의 대상이자, 새롭게 다시 상상의 나라를 펼쳐는 영감의 원천이 된다.

기억의 강, 1994-2008, 대전시립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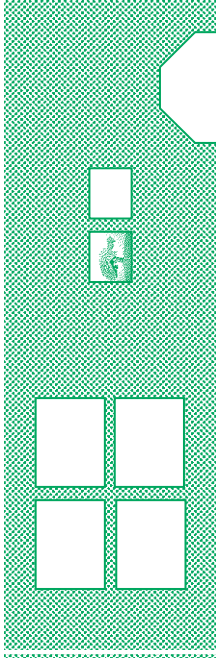
2

평생 자연 속에서 살아온 친구의 정직한 시선에 비추어 예술가로써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며 진정한 자연 예술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간다.

“풍경을 그리기 위하여 공주, 연기 접경지역 이곳저곳 돌던 중 [...] 눈에 띈 향나무 한 그루. 솔직히 나는 그게 향나무인지도 몰랐다. [...] 향나무는 구룡 야산 언덕 위에 있었는데 나를 막 쳐다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싶은 마음이 “확” 들었다. [...]”

최근 오랜만에 들른 그 친구가 이 그림을 반긴다. “어 이거 그 나무 아녀!” [...] 문외한이라며 그림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친구가 이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니 손으로 나무 끝 언저리를 가리키며 “눈이 내릴 때 눈이 쌓이면 나무가 더 속 늘어져 보이는 거여.” [...]”

평생 자연과 함께한 친구의 이 소중한 조언, 다시 한번 일반인들의 솔직하고 경혈에 바탕을 둔 정직한 바라봄에 비하여 소위 미술가라는 나 자신의 적위성과 수준 이하의 영터러 지어내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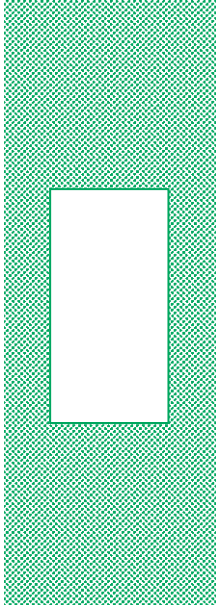


유한성을 깨닫게 한다. 나는 그림 안 그리는 일반인들의 눈을 사랑한다.”

친구가 권유한 불바리는 꿈나무, 2009-2012, 오승민 소장
친구가 권유한 양쪽 방향, 2009-2012, 최동환 소장

자연예술가와 화가-봄, 2005, 대전시립미술관 소장
자연예술가와 화가-여름, 2005, 대전시립미술관 소장
자연예술가와 화가-가을, 2005, 경남도립미술관 소장
자연예술가와 화가-겨울, 2005, 대전시립미술관 소장
친구가 권유한 향나무 1, 2004-2007, 정지욱 소장 ●
친구가 권유한 풍강-향나무 2, 2004-2007, 아산사회복지재단 소장

친구가 권유한 방울리 활아버저 고목나무 여덟방향, 2010



3

계절과 시간,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얼굴을 화폭에 담아내며 자연의 순리적 흐름에 주목한다.

“우리는 풀포기의 떨림에서부터, 여치의 울음, 새, 물고기, 나뭇결에 스치는 바람 소리, 밤하늘의 별빛, 봄의 꽃, 여름의 열기, 가을의 드물고 높은 하늘, 겨울의 차디찬 기온은 물론 [...] 동서남북이 확 열려진 커다란 공간과 변화되는 시간을 세계질의 선에서 바라보는 야투의 울동 속에서는 자연처럼 선하고 강하며 깨끗하고 많은 의식을 얻을 것이라는 바람이 그 이유이다.”

-1981년, 7월 하순, 호박잎이 커질 무렵, 그 위에 떨어지는 밤소나기를 들으며, 구 공주여고 교실 작업장에서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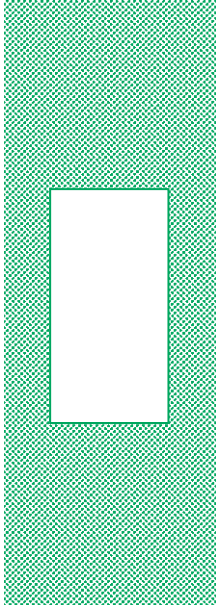
고개 속인 꽃에 대한 인사-이른 봄, 2005-2009, 개인 소장

고개 속인 꽃에 대한 인사-가치, 아침, 2016, 개인 소장

고개 속인 꽃에 대한 인사-참새, 정오, 2016, 황진영 소장

고개 속인 꽃에 대한 인사-부엉이, 밤, 2016, 황진영 소장 ●

오름길, 2011-2012,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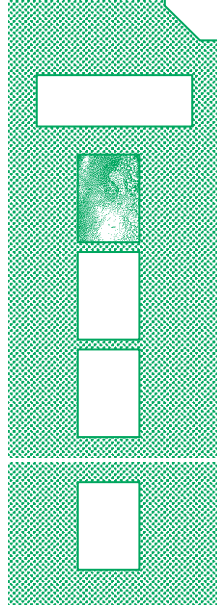
4

자연과 교감했던 자신의 순간뿐만 아니라, 뜻을 함께한 동료들의 작업 역시 회화로 소화하며 의미를 뒤흔다. 이는 자연미술의 다양한 양상을 제시함과 더불어 퍼포먼스 당시 느꼈던 감상과 상황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며 상상을 덧댄 창작물이자 유실된 야카이트에 대한 대안으로서 작용한다.

“졸업에 다가간 두 개의 기억, 하나는 이성원. 임에다 닷 대신 물고 있는. 다른 하나는 임동식의 온몸에 풀 끈고 견기. 야투를 상정하는 그것으로 그린 것이예요.”

“사람의 손을 떠날 때 비로소 스스로 자유로이 그 내용을 다각적으로 이룬다.” -김영호의 신 피우기에 대한 임동식의 생각

“전국광이 1975년 8월 안면도 꽃지해변에서 행한 ‘수평선’은 한국미술청년작가회 야외작품발표회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찍은 슬라이드 필름에 문제가 생겨 아깝게도 원형의 사진을 남기질 못하였다. [...] 전국광의 ‘수평선’은 당시 국내 미술계에 생



3

계절과 시간,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얼굴을 화폭에 담아내며 자연의 순리적 흐름에 주목한다.

“우리는 풀포기의 떨림에서부터, 여치의 울음, 새, 물고기, 나뭇결에 스치는 바람 소리, 밤하늘의 별빛, 봄의 꽃, 여름의 열기, 가을의 드물고 높은 하늘, 겨울의 차디찬 기온은 물론 [...] 동서남북이 확 열려진 커다란 공간과 변화되는 시간을 세계질의 선에서 바라보는 야투의 울동 속에서는 자연처럼 선하고 강하며 깨끗하고 많은 의식을 얻을 것이라는 바람이 그 이유이다.”

-1981년, 7월 하순, 호박잎이 커질 무렵, 그 위에 떨어지는 밤소나기를 들으며, 구 공주여고 교실 작업장에서 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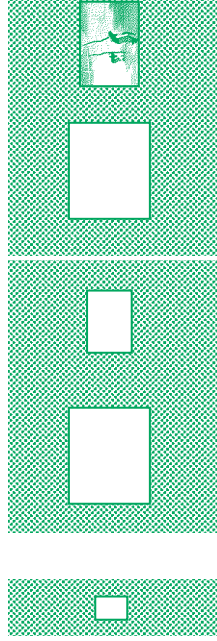
고개 속인 꽃에 대한 인사-이른 봄, 2005-2009, 개인 소장

고개 속인 꽃에 대한 인사-가치, 아침, 2016, 개인 소장

고개 속인 꽃에 대한 인사-참새, 정오, 2016, 황진영 소장

고개 속인 꽃에 대한 인사-부엉이, 밤, 2016, 황진영 소장 ●

오름길, 2011-2012,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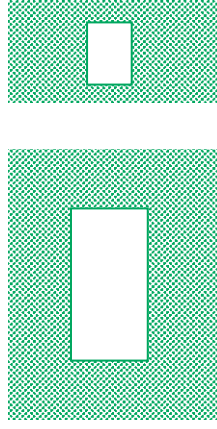
4

자연과 교감했던 자신의 순간뿐만 아니라, 뜻을 함께한 동료들의 작업 역시 회화로 소화하며 의미를 뒤흔다. 이는 자연미술의 다양한 양상을 제시함과 더불어 퍼포먼스 당시 느꼈던 감상과 상황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며 상상을 덧댄 창작물이자 유실된 야카이트에 대한 대안으로서 작용한다.

“졸업에 다가간 두 개의 기억, 하나는 이성원. 임에다 닷 대신 물고 있는. 다른 하나는 임동식의 온몸에 풀 끈고 견기. 야투를 상정하는 그것으로 그린 것이예요.”

“사람의 손을 떠날 때 비로소 스스로 자유로이 그 내용을 다각적으로 이룬다.” -김영호의 신 피우기에 대한 임동식의 생각

“전국광이 1975년 8월 안면도 꽃지해변에서 행한 ‘수평선’은 한국미술청년작가회 야외작품발표회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찍은 슬라이드 필름에 문제가 생겨 아깝게도 원형의 사진을 남기질 못하였다. [...] 전국광의 ‘수평선’은 당시 국내 미술계에 생



신작 회화 5점 서울시립미술관 제작지원

소하였던 야외작품으로 해변에 솟은 한 아름다운 바위에 흰 광목천을 이용하여 일직 장소에서 보면 수평선이 연결되어 보이도록 [...] 감아놓은 것으로 [...] 작가가 [...] 타계하였으므로 [...] 제한은 불가능 [...] 이 작품의 내용과 분위기를 알리고자 2001년 4월 1일 이성원, 임동식, 임정훈 [...] 꽃지해변을 찾아가 섬을 촬영하고 그 위에 당시 내용을 아는 임동식이 그린 것이다”

-『예술과 마을』(2001)

졸업에 다가간 두 개의 기억, 2009, 개인 소장

중경이 되어본 청년(류한길), 2019-2020

「예술과 마을」 도록 아카이브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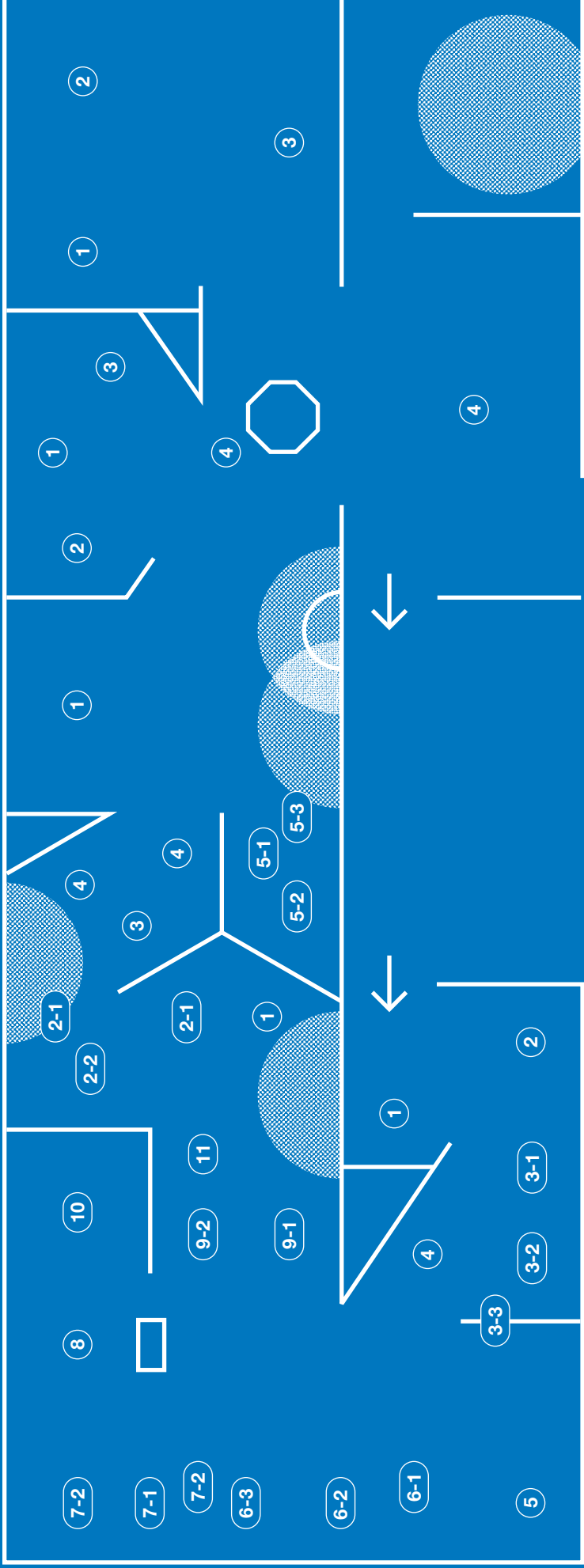
1975 안면도 꽃지해변 전국광의 수평선 작업을 그린다, 2019-2020

임에다, 2019-2020 ●

올라가, 2019-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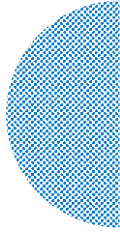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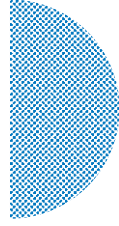
1980 금강현대미술제 김영호의 강에 흰신 피우기를 그린다, 2019-2020

「예술과 마을」 도록 아카이브 재가공



영상

② 아카이브 스토리 2, 2020



① 아카이브 스토리 1, 2020



③ 아카이브 스토리 3, 2020

④ 인터뷰 영상 1-4, 2020

이수경-아름다움으로 위로 받는다는 것

이성원-자연미술, 본래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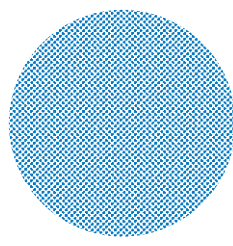
김학량-놀이, 풀기, 닭기, 닭기: 어딘가, 먼저 당도해있는

무언가/누군가에게 업실려 더부살이하는,

임동식의 회한 아픈한 삶과 예술

김해민-임동식 되돌아보기

⑤ 일어나 올라가 임동식, 2020
제작 57STUDIO



연계 프로그램

교육

우리의 작은 세상 / 가족
2020.9.-11.중

강연

작가와의 대화 / 일반
2020.10.중

행사

뮤지엄나이트 / 일반
2020.10.28.

※ 일정 및 관련 세부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될 예정입니다.

관람시간

Opening Hours

화요일-금요일
토, 일, 공휴일

10:00-20:00

3-10월
11-2월

10:00-19:00
10:00-18: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관

Closed on Mon & Jan 1st

문화가 있는 날

Culture Day

매월 마지막 수요일 22:00까지 연장

Last Wed Extended to 22:00

관람료 무료

Admission Free

※서울시 코로나 응원 프로젝트: 8/14(금)부터 한달간 매주 수, 금 밤 21시까지 미술관 연장운영